東大新聞

發行人 金東益
編輯人 南都泳
主幹 宋赫
編輯部長 申寬浩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区筆洞3街26
東国大学校内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㉓3131~9
本社直通 ㉓8498

每週月曜日發行

今週一言

發行不放逸
約以自調心
慧能作錠明
不返冥潤中

기운을 떨쳐 방일하지않고 스스로 억제하고 마음을 다루어, 지혜있는사람은 피난처를 만들어 사나운 물결에도 떠가지 않는다.

<法句經>

會則改正 代議員定總 豫算심의論難거듭

이날 가장 큰 안건으로 논의되었던 會則改正案은 작성, 대의원에게 배부까지 했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시간을 끄는 바람에 결정되지 않았고, 금명간 소집될 것이라 보인다.

◇통과된 각부별 제1기 예산。

▲총무부=8만7천원 ▲학예부=14만7천2백원 ▲공보부=23만1천원 ▲청백원 ▲봉사부=3만5천원 ▲응원부=5천원 ▲총여천무부=12만원 ▲단대행사보조비=44만원 ▲대의원회=24만원 ▲총학원 ▲총정부회장활동비=8만원 ▲축전행사비=50만원 ▲리더쉽·웍숍=10만원 ▲ROTC하계위문비=10만원 ▲예비비=1백6만4천2백원。

이날 학생회 정기총회는 공석부장단 인준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결산보고및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져 회의가 장시간 늦어지는 바람에 대의원들이 수시퇴장하는 사태를 빚어 회칙개정은 다음총회로 미뤄졌다。

總學生會 豫·決算案통과

◇…… 72학년도 총학생회 제1기 예산안심의및 전 ◇…… 년도 제2기 결산안보고및 회칙개정을 위한 7 ◇…… 2년도 제1차대의원회 정기총회가 지난 7일 ◇…… 오후1시 총학생회 제1회의실에서 열려 회칙개 ◇…… 정과정에서 정족수 미달로 유산되고 말았다。 ◇…… 紀声총학생회장경 대의원의장 사회로 진행된 이

4個부장인준

吳法眼부총장을 비롯한 지도교수및 대의원 1백14명이 빛석한 이날 총회에서 신임학생회 부부총장을 격려사에서 『잠시 학풍조성에 힘쓰는 학생이 되어야한다』 라고 전체로 『시야를 넓혀 다동국의 중흥을 세워야 한다』고의 당부했다。

空席中인 部長들의 인준에 있어서는 총무부장에 朴貞仁(경제 4)、응원부장 黃春元(경제 4)、봉사부장 魯東錫(공경4)、代議員会事務長에 李世雨(농학4)君이 만장일치로 인준을받았다。

이어 71학년도 총3백5십여만원에 달하는 결산보고가 있었는데, 각기 대의원들이 각단과대학행사비의 평준화문제를 제기, 異見이 많았으나 옥의장의 『창차하겠다』는확답으로 결산보고는 특별한 말썽없이 통과되었다。이어 72학년도 제1기 예산안심의에 들어가 매년 마로 細目을 定해 놓았던 祝典費를 按配해주자 을 각단대별로 축전비(50만원)가 예년보다 적어 그냥 수정없이통과되었다。

이어 현재 활발히 진행중인 무궁화심기운동에 대한 예비비는 학생과 朴在憲지도주임의 보충설명으로 논란없이 통과되었다。

學生證발급

학생과에서는 学生証미발 무궁화운동에 앞 특설 캠프이며, 部編成은 敎職員·学生·宗立학교 学生·同門·一般部 등이고 4명을 1개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시상은 綜合우승상등 12개 중목에 20여개로 확정했다。

蔡이사장 기념植樹

學生會館주변등綠化

지난 5일 맞아 蔡基昻이사장, 吳法眼부총장을 비롯 학처장, 교직원및 학생등 다수가참석, 오전 11시 학생회관주위에 목련·향나무등의 기념식수를했다。

이날 식수는 각기 심은 묘목에 기념팻말도 세웠는데, 30여그루가식수되어학생회관주위가한층 美化되었다。

또한 농어촌연구부원은 녹지식수에 나서 학생회관 주위와 운동장에 1백여그루의 무궁화를 심었다。

經營學科우승

경상대체육대회서

경상대학 신입생체육 축구대회가 지난6일 오후3시부터 대운동장에서 열려 우승은 경영학과팀이 차지했다。

李竜沢학장을 비롯한 主任교수, 학생·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축구시합은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 베풀어졌다。

李학장은 개회사에서 『오늘의 스포츠정신을 계기로 선후배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상부상조하는경상대학생이 되어줄것』을당부했다。

이날의 경기는 솜씨뽐로 리그전을 벌였는데, 선수중에 신입생은 의무적으로1~2명선발되었다。전적은경영과 우승, 무역과 준우승이었다。

學生會館주변등綠化

급자를 대상으로 오는17일 일괄지불할 방침이다。

諸사정에의해 신청부한학생들에게 학생증발급은17일하루로 모두 발급을 마무리하게된다。

三次로 溫陽서展開

무궁화심기 苗木도기증

총학생회서 전국적인운동 축사에서 가졌다。

이날 한식, 청명, 식목일을 겸한 3중절을맞아 각 계층에서 추천된 40여명이 무궁화 7백株, 잣나무 4백株, 밤나무 2백株로, 기념식수를 하고 남은 묘목은 온양읍및 청파女高, 아산中에 기증했다。

한편 무궁화심기운동은 아산군청을 발론, 朴成鎬공보실장에게 제안트로 온양읍 중앙면 등 제3차지구 기념식수및 강연회를 지난5일 온양면 기념식수에 가졌다。

이날 식수된 배나무는 「R·뢰-벤」 박사는 배를 「B·뢰-벤」 博士등과 함께 西獨政治学界의 三大山脈을 이룬다。

西獨政治学界의 巨頭로 政治思想과 東西関係研究로 世界的인 注目을 끌어온学者이다。

그는 今年2월停年退職이후 현재世界政策및 中共外交에 관한 招請講演会가 12일 오전11시 本校주최로 中講堂에서 개최된다。

西獨政治学界의 世界的碩学이며 西獨政府東方政策의 길잡이로 役割을담당하고있는 「K·메-네르트」 博士의 마이스터」 博士등과 함께 西獨政治学界의 巨頭로 西関係研究로 世界的인 注目을 끌어온学者이다。

▲경주지구=서면원(国文4) 김용진(醫4) 장춘원(醫4) 김내홍(土木2)

▲울산지구=이광배(統4) 황선원(經4) 정벌국(哲3) 손양호。(仏3)

▲월주지구=이관주(農4) 이장표(農4) 이숙녕(経子4)

▲송정리지구=이대성(仏4) 노동석(工経4) 이선복(社敎4) 오부남(ㅅ) ▲영흥지구=구병서(経4) 장성일(食工4) 안재근(社敎4) 이민(仏4)

▲송정리지구=김한(農4) 김재홍(農4) 이광배(統4) 장성일(食工4) 안재근(社敎4) 오부남(ㅅ) 이선복(経4) 이민(仏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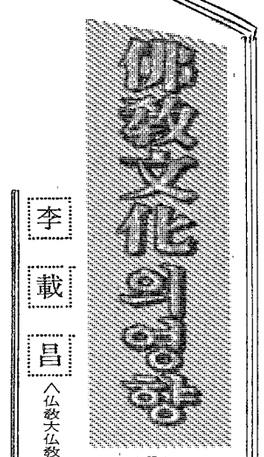
◇현지조사반 組편단

韓國文化와 技藝

古墳을 계기로 살펴 본 —特輯

佛教文化의 영향

李載昌 <仏教大仏教学科교수>



一、

近者 일본 奈良縣「아스까」村에서의 高句麗系古墳壁畫의 발굴에 관하여 都下 各新聞이 연일 떠들석 하더니 다시 또 第2, 第3의 다른 韓国系 고분녀화가 발굴되었다는 보도가 꼬리를물어 많은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속으로 몰아넣고 있는것같다。

36年間의 쓰라린 과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文化의 혜택을 준 証拠物로서의 이런 遺物들이 나왔다는 것은 자랑스럽고 흐뭇하며 심지어 통쾌한 심정마저 금할수가 없다。

그러나 筆者는 다른 마음 한구석에 은연중 솟구치는 불쾌한 심정도 또한 금할수가 없으니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日人들에게 준 문화의 영향이지대하였고 미개한 그들을 所化의 길로 이끌어준史実이 너무도 명백한것인데 이제사 그런 史実이밝혀지는한 印象을 풍겨주는 記事도 없지않아 있기 때문이다。

어쩔는 최근의 잇달은 녀화의 발견은 우리가너무도 잘 알고 있는 史実에 대한 또하나의 증거물이라는점、그리고 고구려가 끼친 영향의 深度가 더해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二、

그들에게 끼친 영향가운데 가장 비중이 컸던것은 뭐니뭐니해도 仏教文化이고 가장 두드러졌던時期는 三国時代後半 (6世紀中葉) 에서 統一新羅時代 初期 (9世紀前半) 에 이르는 약3백년간 이었다。

처음으로 일본에 불교를 伝한 것은 중전부터일본과 우호관계를맺고 있던 백제로 부터였다。그러나 그이후 백제는 물론 고구려、신라에서도 많은 승려들이 일본에 건너가 불교를 가르치고 불교문화를 전달해 주었으며 일본사회의 개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우선 당시의 불교에 의한 양국간의 관계를다음과같이 略書의 편의를위해 年代順으로 정리한 후 (別表) 三国別로 特記할만한것을 敷衍할까 한다。

三

우선 仏教를 처음으로 日本에 전한 百済의 경우를 보면 첫째로 仏教를 전한 2年後에 9人의 승려와 交替시켰다고 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道深 등 7人은 이미 그 以前에 日本에 파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또한 百済는 단순히 仏教를 전해 주기만 한것이 아니라 승려들을 보내 일본불교의 指導役을 담당시켰던 것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둘째로 仏工·寺工·瓦匠·畫工 등도 일본에 여러차례 보낸 기록이 있음을 볼 때、백제의 仏教伝授는 教学的인 面에서만 云謂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다시말하면 各種 技術者들도 건너가서 寺院造営과 造像、造塔 등도 担当함으로써 総合的인 仏教文化의 移植을 遂行했던 것이다。이것은 일본의 古代寺院의 伽藍配置가 우리의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고 또 일본 四天王寺의 堂塔配置가 軍守里廢寺의 그것과 同一한 設計図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결과에 의해서도 이미 증명된 바가 있는 것이다。

세째로는 600年에 渡日한 観勒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승려들이 渡日時에는 仏教以外의 다른 문화도 전해준 것을 알 수 있다。또 일본 최초의 僧正이 되어 日本 불교계의 紀綱을 바로잡기도 하였으니 당시 일본 불교계의 要職은 모두 우리 승려들이 차지하여 일본 불교의 발전에 기여했던 것이다。그는 또 医術에도 밝은 승려이어서 일본 医学의 기초적인 始祖가 되었던다。

四

고구려의 경우에 있어서는 첫째로 595年에 도일하여 20年間 머물면서 聖徳太子에게 師伝의 礼를 받았던 慧慈의 경우를 들 수 있겠다。周知하다시피 聖徳太子 (574~622) 는 그가 摂政한 36년간의 治績을 통하여 일본을 所化의 길로이끈 英主로써 日本歴史上 뚜렷한 地位를 占하고있거니와 그는 또 仏教学의 연구에도 出衆하여 法華経疏 4권、維摩経疏 3권、勝鬘経疏 1권 등의 著述을 남기고 있으며 불교의 大衆化·生活化에 크게 힘썼고 17条에 달하는 일본최초의 憲法을 제정하기도 하였는데、그의 이러한 눈부신 活動은전혀 그의 背後에 있던 慧慈에게 힘입은 結果인것이다。

둘째로는 610년에 도일한 曇徴도 그는 불교학은 물론 五経에도 통달하였고、彩色·紙墨·연애등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으며、또 그림에도 능한 승려이었다。그리하여 徴이 끼친 영향을 들 수 있다。그는 省墓와 寒食다운 寒食을 보낼 수 있었다。

寒食에는 나라에서는 宗廟와 각 陵園에 祭享을 지냈었고、民間에서는 墓前茶礼를 지냈다。開化 후 外来文物이 흘러들면서、우리의 伝統的 風俗이 많이 잊혀져 가는 중에도、李朝 儒教倫理 社会에서 익은、뿌리 깊은 祖上崇拜 思想의 表現儀式과 관련 있는 이런 날을、아직도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거의 해마다 闕해 온 寒食茶礼를 植木日 公休로 定仁까지 내려가서、茶礼도 지내고 몇 그루 植木도 하니、累年의 祖上의 근세유학의 학해비라고 이르는 「후지하라 세이꼬」 (藤原惺窩) 는 승려 (僧籍) 을 버리고유자 (儒者) 로되어 불교와 서로 맞서는 뜻을 가졌다하며、그는 유교의 상징으로서 심의도복 (深衣道服) 을 입었다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제복 (祭服) 에서·영향된것같다는 일본학자의 말도 있거니와 그는 퇴계의 발문 (跋文) 이 붙은 연평문답 (延平問答) 을 읽고 큰 영향을 받았다。

장황 (裝況、一五六七—一六一八) 은 일본으로 포로가 되어 갔었는데 거기서 그는 사서오경 (四書五経) 을 베껴주기도 하고 오경발 (五経跋) 이라는 글도 써주었으며 「세이꼬」와 서로 아는사이였다하는데 퇴계가 一五〇一년에 나서 一五七〇년에 돌아 갔으니、그가 퇴계의 저서도 소개하였으리라고 상상할 수도 있다。아베오시오 (阿部吉雄) 씨에따라 한편 이르는 「후지하라 세이꼬」—(藤原惺窩) 는 승려 (僧籍) 을 버리고유자 (儒者) 로되어 불교와 서로 맞서는 뜻을 가졌다하며、그는 유교의 상징으로서 심의도복 (深衣道服) 을 입었다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제복 (祭服) 에서·영향된것같다는 일본학자의 말도 있거니와 그는 퇴계의 발문 (跋文) 이 붙은 연평문답 (延平問答) 을 읽고 큰 영향을 받았다。

장황 (裝況、一五六七—一六一八) 은 일본으로 포로가 되어 갔었는데 거기서 그는 사서오경 (四書五経) 을 베껴주기도 하고 오경발 (五経跋) 이라는 글도 써주었으며 「세이꼬」와 서로 아는사이였다하는데 퇴계가 一五〇一년에 나서 一五七〇년에 돌아 갔으니、그가 퇴계의 저서도 소개하였으리라고 상상할 수도 있다。아베오시오 (阿部吉雄) 씨에따라 한편 이르는 「후지하라 세이꼬」—(藤原惺窩) 는 승려 (僧籍) 을 버리고유자 (儒者) 로되어 불교와 서로 맞서는 뜻을 가졌다하며、그는 유교의 상징으로서 심의도복 (深衣道服) 을 입었다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제복 (祭服) 에서·영향된것같다는 일본학자의 말도 있거니와 그는 퇴계의 발문 (跋文) 이 붙은 연평문답 (延平問答) 을 읽고 큰 영향을 받았다。

그는 우리나라책을 읽지 않은것이 없다고 전한다。일본의 유학은「후지하라 세이꼬」(藤原惺窩)「하야시·라산」(林羅山)、「이마사끼 안사이」(山崎闇斎) 들에 의하여 부흥 일어났고、그들은 연평문답 (延平問答) 그리고 크게 영향되었다고 한다。

천명도설 (天命図說) 은 지금까전서 (退溪全書) 가운데 들어있는 논문의 하나다。그것은 하늘의이치와 사람의 성품의 구조、그리고 이세상 모든것을 이기 (理氣) 의 이치로 설명하려는 것이다。하늘은 곧 이 (理) 이고 그것은 네개의 덕 (四德) 元、亨、利、貞) 을 갖추고 있다。원 (元) 은 천음、비롯 하는 이치 (理) 고、형 (亨) 은 통하는 이치며、이 (利) 는 나아가 사모치는이치며、정 (貞) 은 이루는 이치인데 이것이 그치지않고 도는것은 음양 (陰陽) 오행 (五行、水、火、木、金、土) 으로 흑러갈때에도 이네가지 덕이 언제나 그가운데 깃들고 있다。사람이나 물건은 모두 받은바 성품 (性) 을 갖다。이것은 하늘의 이치다。그러나 기운 (氣) 에있어서는 서로 달라서 올바르고 기울은 구별이 있다。이렇게 하여 사람과 물건과는 구별하고、사람의 마음에있어서 정 (性) 과 정 (情) 을네가지 덕과 음양 오행과 다섯가지 떳떳함 (五常、仁、義、礼、智 信) 과 일곱가지 정 (七情、喜、怒、哀、懼愛、怒、欲) 으로 나누어 설명하는것이다。이것은이른바 성리학 (性理学) 이라는 것이고 서양철학에있어서 이철주의 (理性主義) 또는합리주의 (論理主義) 가 같은 철학사상과 그 논리적구조 (論理的構造) 가 같다 한다。

한다면 유교문화 (儒教文化) 라 이르지만 모호한 말이다。유교와 유학 (儒学) 의 뜻이 다르기때문이다。유교는 먼저 가르침의 뜻을 밝혀 가려내지 않으면 아니된다。

①유교와 유학

유교는 하나의 원시종교 (原始宗教) 다。중국에 옛책 전한서 (前漢書) 30권지 (志) 제10 예문 (藝文) 에는 다음과같은 말이있다。「유가 (儒家) 란 대개 사도 (司徒) 의 벼슬인 일을 돕는 사람들로부터 나왔으니 음양에 따르고 교화를밝히는 사람이다。글을 육경 (六経) 가운데서 나왔고 뜻을 인의 (仁義) 에 머물러들때 요순 (堯舜) 을 비롯하여 말하고 문 (왕) 무 (왕) 를 본받아 밝히며 공자를 높이고 돕는 스승으로 삼아 그의 말을 중히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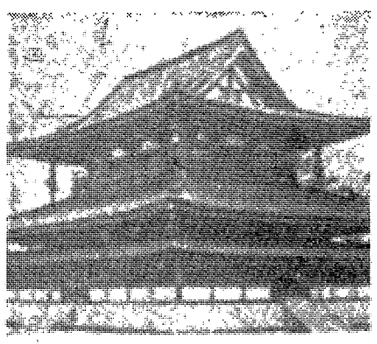
여기서 우리는 유교와 유학의 개념을 가려볼수 있다。유교란 「음양에따라 가르쳐 화합을 밝히는 종교이고、유학은 육경 (六経) 과 요순·문무·공자의 가르침을 말한다。다시 말하면 유교란 음양에 따르는 (順陰陽) 원시종교의 한다이고、유학이란 요순·문무·공자를 받드는 학문이다。그러나 이것은 서로 달라서 올바르고 기울은 구별이 있다。이렇게 하여 사람과 물건과는 구별하고、사람의 마음에있어서 정 (性) 과 정 (情) 을네가지 덕과 음양 오행과 다섯가지 떳떳함 (五常、仁、義、礼、智 信) 과 일곱가지 정 (七情、喜、怒、哀、懼愛、怒、欲) 으로 나누어 설명하는것이다。이것은이른바 성리학 (性理学) 이라는 것이고 서양철학에있어서 이철주의 (理性主義) 또는합리주의 (論理主義) 가 같다。

이런 논리 에서 일본은 명치 (明治) 때 (一八六八) 부터 일들을 중심으로 문국주의 (軍国主義) 의 틀이 잡히기 시작하고 드디어 우리나라를 넘보고 침입전쟁 (清日戦爭) 또는 일로전쟁 (日露戦爭) 등을 일으켰다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유학의 영향이라 고는 못하더라도 백성이 한데뭉치고 일들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을 수 있었던것은 모두 유학에서 받은 영향이라 할 수 있다。일본학자 「야마베 요시오」 (阿部吉雄) 씨는 그의 저서 「야마사끼·안사이」 (山崎闇斎、1618~1682) 를 말하여、「더욱 「야마사끼·안사이」의 주자학에는 한국의 보배 (孫寶) 로 존경을 받는 이퇴계 (李退溪) 의 주자학이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하는문제를 풀겠다」「안사이」는 주자학 그 자체의 연구에 있어서 전후 (前後) 그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깊은 연구를쌓고 있을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자의 사상 그것을 일본사람의 사상과 연어성활 (言語生活) 속에풀어넣어 그 사상을 실천 (実踐) 의 일동력 (原動力) 이 되도록 다시 살린데 (再生) 그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이렇게 볼 때 일본의 사상、그리고 실천의 원동력은 우리나라 유학에서받은 영향이라 할 수 있다。

③맺는 말

위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유학이 일본에 영향을 준것을 간단히 보았다。일본의 유학 또는 그 밖의 문화는 우리의 것을 기틀이 받아가 그것을 발전시킨것이 뚜렷하니 우리는 그들의 문화로서 어버이의 나라라고 이를 수 있다。그럼에 오늘 날 그들이나 또는 우리들은 그것을 잊고 있으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사상을 살펴보고 일본과 또 세계 (退溪) 를 비롯한 근세조선 (이씨조선) 때의 유학자들의 영향이 컸다。



①法隆寺金堂②七支刀上神宮藏③宗像神社冲宮祭祀遺跡出土品④宗像神社中宮祭祀遺跡出土品⑤宗像神社中宮藏

三國時代 僧侶 日本文化의 指導役

政治·社會·科學개발에도

年代(西紀)	摘要
552	百済、聖王、仏経과 仏像을 日本에 보내 仏教를 伝함
554	百済、惠聰、七人의 僧侶를 日本에 보내 道深등 七人과 九人의 交替시킴
557	四済、経論、律師、禅師、比丘尼、呪禁師、佛工、寺匠等을 日本에 보냄
583	百済、日本王의 청에 의해 高僧 日羅 渡日함
584	日本、高句麗僧 惠便、教化를 시작하고 善信尼、禅蔵尼、惠善尼의 三比丘尼를 得度시킴 百済、日本人이 仏像、經論 二軸을 가지고감
587	日本、百済僧 聖国 王宮에서 説法함
588	百済、寺工、太良末、太文、賈古子 三人과 瓦博士、白加 日本으로 건너감。仏舎利 및 僧、寺匠、瓦匠등을 日本에 보냄
591	百済、日本留学僧 善信尼등이 百済에와서 戒律을 배움
595	高句麗、僧 慧慈 日本으로 건너가서 聖徳太子師範 百済、僧 慧聰、令斤、惠資등 日本에도착함
596	日本、法興寺가 이룩됨에 慧慈와 惠聰을 始住시킴
602	百済、僧 観勒 日本에 이르러 天文、地理、歴書、甲方術書등을 전함。 高句麗、僧 雲聰、渡日함
609	日本、百済僧 醫恵、道欣、和州、元興寺에居함
610	高句麗、僧 微、法定 日本으로 건너감
615	高句麗、日本서 敎化하면 慧慈 귀국함
625	高句麗、僧 慧灌 日本으로 감。
646	日本에가있던百済僧 道登 宇治川大橋을놓음
655	百済、比丘尼 法明 渡日하여 維摩経 讀誦으로 病者를 고침
684	百済僧 道寧 日本서 所雨 救因함
685	新羅、日本僧 観常、雲観留学을 마치고 日本으로 돌아감
686	日本、百済僧常輝가 百歳에 이르름에 日本王、三十五를賜封함
687	新羅、僧은 僧侶등 日本으로 건너감。日本留学僧 明聰、観智등 돌아감 令、観世音 勢至像 日本留学生 王子 소羅 仏像·幡·幡 등을 가지고 日本에건너감。
688	日本、太草으로 日本王 百済僧 道蔵에게 新雨祭함에 비를 빌어 天下를 治足하여지게함
690	新羅、僧 숀등등 五十餘人 日本으로 건너감。
707	新羅、日本留学僧 淨遠 日本으로 돌아감。
718	新羅、高句麗에 留学갔었던 日本僧 行善 日本으로 돌아감。
740	日本、新羅 聖徳王時 (702~737) 에 渡日했던 新羅僧 審祥 金鍾道場서 華厳経을 開講하니 都下 十六院의 名匠과 수많은 学徒들이 雲集함
752	新羅、王子 金泰廉이 日本에 건너가 南部東大寺에 住하여 仏事를 도움。
758	新羅、僧 三十人、尼 二人、男子 十九人、女子 二十人이 渡日하여 武蔵野 関地에 新羅郡을 設置하고 敎化에 힘씀。
816	新羅、僧侶 二十六名이 渡日하여 各寺에서 仏法弘布에 힘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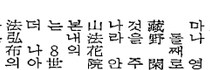
儒學傳播—實踐思想의原動力

退溪의 天命圖說등影響

韓相璉 <仏教大哲学科敎授>

食寒 崔世和

<師範大·国敎科敎授>



俗談에『寒食에 죽으나 淸明에 죽으나』라는 말이 있다。하루 먼저 죽으나 뒤에 죽으나 같다는 말이다。寒食은 冬至 후 일백은일 되는 날로써 해마다 4월 5일 혹은 6일 뜸이 되고、淸明은 春分 후 15일이어서 더개는 淸明 전 하루、이틀이 寒食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녀、올해에는 寒食과 淸明이 한날 겹치고、거기에다、마침 이 날이 4월 5일이었기 때문에、植木日이기도 했었다。그래서、일부 매스콤에서는 三重節이라고 들먹이기도 했지만、얼래 節氣로 말하면、年中 24節氣 중에 드는것은 淸明뿐이다。그러나、이는 이런 뜻에서보나도 범연하게 名節이란 뜻으로 붙인 것이려니、뭐 이를 꼭 꼬집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나는 三重節 덕분에 饋餐의 重压에서 홀가분히 풀려나서、오랫만에 寒食다운 寒食을 보낼 수 있었다。

寒食에는 나라에서는 宗廟와 각 陵園에 祭享을 지냈었고、民間에서는 省墓와 墓前茶礼를 지냈다。開化 후 外来文物이 흘러들면서、우리의 伝統的 風俗이 많이 잊혀져 가는 중에도、李朝 儒教倫理 社会에서 익은、뿌리 깊은 祖上崇拜 思想의 表現儀式과 관련 있는 이런 날을、아직도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거의 해마다 闕해 온 寒食茶礼를 植木日 公休로 定仁까지 내려가서、茶礼도 지내고 몇 그루 植木도 하니、累年의 祖上의 恩德을 기리려 이날 茶礼를 마치고、飲福에는 山中無火라 어쩔 수 없이 찬 음식을 먹고 벌었는데、可謂 寒食이어서 씀쓰름을 지었지만 또한 즐거웠다。

寒食의 由来는 中国의 古制로、이 날 엔 바람이 심하여、火災豫防으로 불을 禁했기 때문에、찬 밥을 먹은 습관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 옳겠지만、한편 이에는 中国 春秋時代의 介子推의 이야기가 密着되어 있어、歴路 車中에서 또 한번 그 이야기가 내 머리를 스쳤다。

推는 晉文公의 十九년 亡命 중에 죽그를 모셨는데、文公이 還国하여 일등이 된 후에 封祿을 주지 않으니까、그 어머니와 綿山에 숨었다。그 후에 文公이 뉘우치고 불렀으나 나오지 않으므로、그 산을 질렀는데、推는 끝내 나오지 않고 나무를 껴안고 타 죽었으므로、그를 哀悼하기 위하여 이 날은 불을 금하고 찬 음식을 먹는다 한다。

지금이야、寒食이라 해서 그의 죽음을 哀悼하여 일부러 찬 밥 먹는 사람도 없겠지마는、제아무리 일등이 야속했더라도 끝내 反感이 앞선 듯 그 뉘우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愛慢의 옹고집은、에나 이제나 도무지 삭겨이 못된다는 생각을 하자、문득 우리鄕俗의 恋君의 노래가 머리에 떠올랐다。

上에 대한 得算을 조금이나마 덜어、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지성인의 휴게실

적은 부담으로 즐거운 한때를!

시영 남산휴게실

전화 (28) 2159

第三回 東國人登山大會開催公告

다음과 같이 第3回 東國人 登山大会를 開催코자하오니 많은 参加있기를 바랍니다。

一、目的=本大會는 健全한 山岳활동을 통하여 自主와 忍耐、相互親睦과 協同精神을 길러、謙虛한 山岳人의 姿勢를 確立함으로써 健康한 東國人、슬기로운 東國人、높푸른 大望에 挑戰하는 東國人의 氣慨를 드높히고자 하는데 目的이 있다

一、日時=西紀一九七二年四月二十三日 (日曜日) 午前九時三〇分부터 午後五時까지

一、登程=四·一九墓地—白運莊—大東門—太古寺址—登雲閣—北漢山국민학교교정

一、登錄期間=西紀一九七二年四月一七日 (月) 부터 四月一九日 (水) 까지 (三日間)

一、登錄場所=学生会館앞 東國山岳会 特設텐트

一、部의編成=△教職員部=①大学別 教授팀 ②課別 職員팀③教授·職員混成팀 ④宗立学校教職員팀

△學生部=①学科팀②써클팀③学友会팀④ROTC팀⑤클럽 또는 混成팀

△宗立學校學生部=①宗立 男女高等学校팀

△同門部=①同門팀 ②大学院및 行政大学院팀

△一般部=①財団·総務院·監察院 全国信徒会팀 ②宗立学園 联合会팀 ③教授·職員·同門夫婦팀

一、參加費=①教職員部、同門部、一般部=三、〇〇〇원②学生部中、学科팀=二、五〇〇원 ③学生部中 써클팀、学友会팀 클럽 또는 混成팀、宗立学校学生팀=二、〇〇〇원整 (登錄時納入)

一、팀의編成=每팀四名 (隊長一名、隊員三名)

一、施賞=①綜合最優秀賞 ②教職員部=優勝 準優勝 ③学生部=優勝 準優勝④宗立学校学生部=優勝 準優勝 ③同門部=優勝 準優勝 ⑨一般部=優勝 準優勝 ⑦運行賞⑧奬励賞 ⑨奬備賞 ⑩模範賞 ⑪敢闘賞 ⑫人氣賞등 多数

一、賞品=銀컵一座、副賞 四人分

一、記念品=東国山岳誌 (第三號) 四部、記念뱃지 四位、패넌트 四枚

一、集合場所=水踰洞 四·一九記念墓地 広場

一、集合日時=大会 当日 午前九時三〇分 (集合時同부터 採點시작)

一、隊長會議=西紀一九七二年四月二十一日 (金) 午後四時正刻 学生会館 第二会議室

一、其他=審判基準、登程概念図等 자세한 사항은隊長会議에서 발표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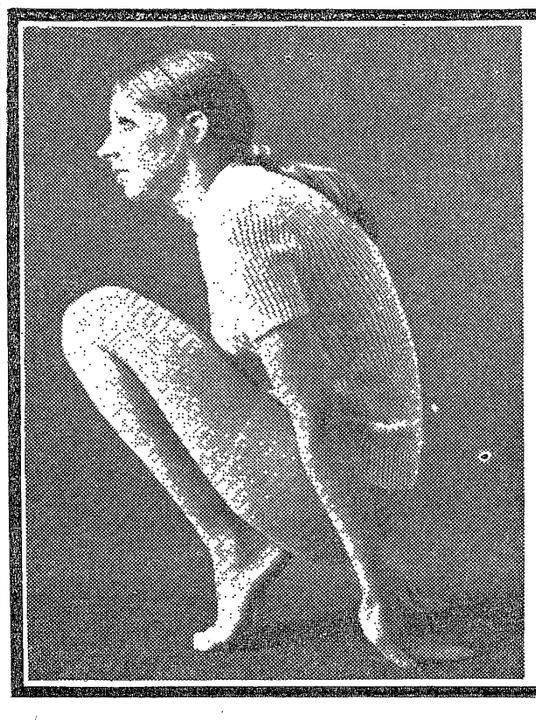
一、連絡處=東大新聞社 東国大学校学生会館 地下一層 (二二一八四九八) 学生課 東国大学校学生会館一層 (☎ 三二三二—九一 (交) 構內三三二)

主催=東國山岳會

後援=東大同窓会 東大新聞社 教育放送局 東大総学生会 宗立学院联合会

西紀一九七二年三月 日

東國山岳會



Panty Stoking

불란서 나이롱糸의 부드러운 촉감

말티팬티스타킹 가격280원

- 핫·팬티스타킹 350원
- 팬티스타킹 210원
- 마이크로메쉬스타킹 120원
- 논·런스타킹 130원
- 프래인메쉬스타킹 120원
- 스판덱스부라쟈 450원
- 가들팬티C型 900원

스타킹·팬티스타킹·란제리·화운데이션

南栄나이론

日本에 移植된 韓國技術의 原型

<文理大史学科教授> 李龍範

日本에 移植된 高句麗文化

特輯—日本에서 發見된 高句麗

「아스까」村에서 새로발견된 古墳의벽화。이벽화가 발견됨으로써 일본 아스까文化가 고구려문화의 영향도 크게받았다는 史實이 증명되였다。

四世紀이래 百濟技術받아

高句麗선製鐵 織造技術도

아시아大陸의 東端에서도 머물러 列島로 이어져 있는 일본이 그 原住族의 倭族이 그들이 지니고 있던 原始的인 生産技術의 단계에서 벗어나 韓半島를 媒介로한 中国대륙의 新文明을 받아들여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된것이 四世紀初였던 것은 그들 스스로가 認定하고 있는 사실이다。

즉 八世紀中葉에 撰述된 日本書紀를 비롯 하여 古事記등 그들의 史書가 伝하는바로는 百濟의 近肖古王(346~374)、近仇首王(375~383)의 二王때 阿直岐에 이어 博士 王仁을 일본에 초빙하고 千字文등을 기증하고 간청에 따라 太子 菟道稚郎子에게 처음으로 漢学을 가르쳤던 것이며 그후 裁縫女·織工·醸造技術者·冶金技能工·陶工·鞍工·畵員·錦工·医薬專門家들이 倭에 파견되어 極東의 이 원시지대를 개척하는데 일등력이 되었던 것이다。일본의 古歌集으로는 가장 오래되어 일본문학의 원천으로 되어 있는 万葉集에는 奈良을 중심으로하여 번영을 이룩한 그나라 최초의 통일정권인 大和朝廷의 귀족층이 恋愛의 즐거움이나 저들이 가는 인생의 애달픔을 자주 「韓衣」와 결부시켜 읊은것은 당시의 멋쟁이 귀족층이 韓国産高級織物에 대한 애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音訓文字인 「仮名文字」가 백제에서 전하였던 한자를 기본으로 5세기경부터 그것도 百済移住者들의 힘을 빌려 이룩되었다는 점에서도 古代일본문화에 미친 백제문화의 영향을 엿볼수 있을 것이나 더 중요한 것은 식생활의 개선이었다。

즉 그것은 稻米栽培및 농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관개技術의 전달이었다。

일본의 稻米栽培는 한반도를 거쳐 伝播되었던 것으로 믿어 지고도 있으나 중국의 中·南部에서 직접 전파되었다는 유력한 이론적뒷받침을 가지고 있는 학설도 있어서 섯불리 단정할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문명의 전파가 곧 보급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그것이 국민에 보급되기에는 이를뿐 발침하는 知識과 技術이 뿌리라야 한다。陸稻와는 달라 고도의 土木기술을 応用한 灌漑法이 마련되어야 하는 水稻栽培는 설사 그것이 일본의 원지민이었던 왜족에게 알려졌다 하더라도 고대일본에서 얼핏쳐을 것이다。韓衣와 더불어 고대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이들바 「韓人池」는 또 이 水稻栽培에도 顯民族이 指導的인 위치를 차지하여 主食物을 생산토록하고 있었던것을 보여주는것이라고하겠다。

한편 백제에서 왜족에게 전파한 기술에서 특수한 것은 7세기초인 그들의 推古十年에 승려 観勒이 易·医·卜에 관한 書籍과 아울러 伝達한 遁甲術이라고 하겠다。

이 둔갑술은 옛부터 漢民族에 전승되어 내려오던 奇術의 하나로서 陰陽의 변화에 따라 신체를 숨겨 吉을 취하고 凶을 피하는 術이며 우리나라의 将師들이 必修과목으로 되어있던 六壬術과 더불어 주로 術数와 天文学에 상당한 기초지식이었어서는 이해가 안되는 一種의 占星的 兵学이다。

현재 우리의 그 「천문학이 놀랄만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으나 그 출발점에서는 사실이다。이미 천문학과 이 천문학의 응용으로이 룩된 曆法을 倭에 전달한바 있던 백제가 다시 그들의 秘術을 木伴村主高聰의 법화와 그 신비를 깨우쳐 사고의 세계로를 여 짜여 졌던 것이나 일본의 官学院에서는 일본에 있어서의 이와같은 백제의 활동을 그들의 韓半島経営의 탓으로 돌리고 자못 意気揚揚한 태도로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전하여 내려와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第2次大戦前까지도 일본에서 皇室의 尊厳과 国体의 수호를 위한 정략적인 목적으로 많은 학者의 과학적인 연구가 충분히 미칠수 없었던 日本書記와 古事記의 면밀한 검토와 考古学의 발달에 따라 최근에 일본의 古代史는 몰라보이거나와 韓国古代史도 다시바꾸어 써야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현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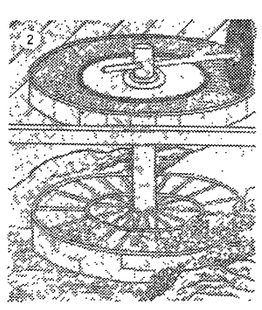
즉 일본의 양심적이고 학문에 성실한 일부学者 同에서 제창하여 묻어져가고 있는 「馬民族日本征服論」같은 신학설이 나오게된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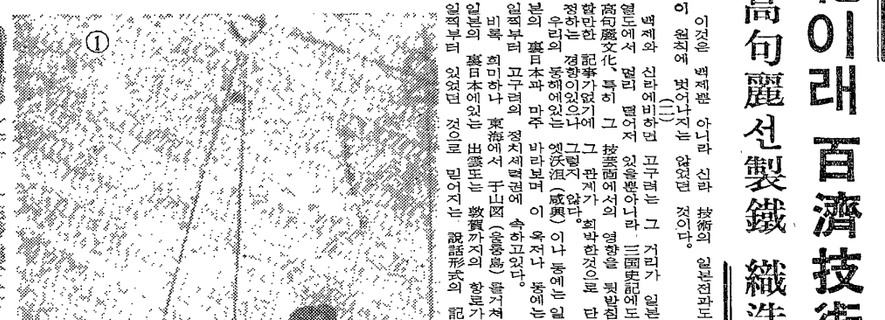
이제 이러한 일본학자들의 諸說을 삼펴보면 가장 대표적인것으로서는 누구나 江上波夫의說을 드는데는 異議가 없을것이다。

즉 그는 현재의 日本天皇家와 이전왕가들 力으로 고대일본의 지배층을 형성한 민족은 중국 대륙의 동북민족이며 夫餘·高句麗에서 한반도를거쳐 일본의 九州北部에서 성장하여 日本列島의 원주민인 倭族을 지배하여 최초의 통일국가인 일본의 大和朝廷을 세웠다는것이 그요지이다。

日本建国神話에서 架空的諸事을 整理하고 西紀元前後부터 일리 알려진 이 김해지방에서는 西歴紀元前後부터 일리 진 歴尚道의 「辰韓」의 鉄」을 바다건너 일본의 北九州와 무역이 찾았던것은 잘알려진 사실이다。鉄 鉱의 採鉱과 그 製鉄에 숙련된인 辰韓의일부가 바다를 건너 北九州에서 鉄器로이룩한 원시적인 왜족의 戸内海를 거쳐 難波에 상륙하여 축적된 힘으로 瀬 戸内海를 수탈하였다는것은 지극히 합리한 해석일것이다。

이렇게되면 일본의 고대문화는 그원주민이 주체가되어 한국문화를 섭취한것이 아니라 한국민족이 그들속으로 한국문화를 일본에 옮겨심었던 것이며 이것이 技術面에는 더두렷히 나타나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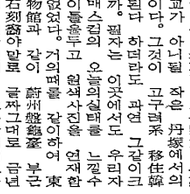
사진=「天工開物」에서…①방직②맷돌③冶金…「天工開物」은 明나라 中期에宋応星이 지은 것으로 古代東洋의 농업, 冶金, 製塩, 製糖, 造船등 과학기술을 集成한 책이다。

日本古代의文化

—壁畵古墳의發見을 듣고—

黃壽永

<국립박물관장·仏大대우교수>



필자는 이달은 高句麗系 벽화분의 발견을 으로 여길에 있어서 인책하려 하지는 않는다。日本의 專門学者 또한 이 『世紀의 壁畵』는 『世紀의 大発見』이라고 보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그것은 『高句麗古墳史』의 일부로 고급직물과 같이 귀족층이 향유하고 애용하던것이다。

그리고 제작년대에 대하여 7世紀後半부터 8世紀初로 추측한것도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하는바 그것은 더욱이 男女의 얼굴묘사에서도 그같이 느껴진다。

특히 미술사 없었던 日本書記와 古事記의 면밀한 조사가 다시 있을 것이로서도 論議는활발하게 전개되는바 현재까지수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우리는 이같은 高句麗系 벽화분의 발견을 환영하면서 우리자신이 지니고 있는 이 部門의 資料에 대하여 서도 새로운 注目이 있어야할 것이다。일찌기 日本에 건너간 先人의 자취를 千数百年이 지난 오늘 의 立場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우리 蔚州 九曲淡의 世界的 一大刻畵가 다시 水沒되어 자취를 감춘 사실과 密封된 일본 최초의 壁畵古墳이 서로 눈앞에 交錯함을 느끼겠다。

도 인책하여야하는것인지 알고도 모를 일이었다。

석기시대로 추정되는 기원전 한국최고의 一大畵蹟 고 그것도 水中에서 출현한 놀라운 사실을제쳐놓고 탁국에서 나타난 발견을 그렇게까지 연일 특 별히서할 까닭이 있을까。근년에이르러 대우기 文 化財 보도에서의 거듭되는 오보나 과장은 지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우리는 특히五·六両世紀、 그리고그이후에있어서도日本초기문화와 미술에대하여 지도적자리를견지하여왔다。그곳에는백제、고구려뿐아 니라신라도넣어서 일본초기문화개발을위하여 선진국 의 자리를 오래 지켜왔다。이것은 누구 보다도 日本의 학자들이、그리고 그못지식인들이 인정하는 自明의 사실이기도 하다。고구려의 日本과의 관계 특히 학문 예술과 종교에서의 역할도 日本의문헌 이나 유물로서 넉넉히 알려져왔다。「개 벽화고분 이 오늘 우리밖에 반영되는 影像을 오늘의 자신 의위치를 스스로 돌어내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아 니다。

그같은 벽화고분은 나올것이 나올수 있는 그장 소에서 나온데 불과하다。누구나 고구려 국립박물관을 찾아 壁畵室 가득히 걸려있는 고구려 벽화의 一大 壯觀을 본다면 이같은사실을 곧깨닫게 될것이다。 일본신등이 韓国各紙에 더러 보도하 고 文化 的으로 「先進国」이란 題로 광호를 달고 우리의 経 済建設에 대한 日本의 対韓協力까지 들어서 교점 고있는 것이나 「考古学上의 문제에 빚지하여 이렇 게까지 쓰고 있다니 고 하면서 「大活字」로 축을 쥔 다」는 것 한것을 우리는 어떻게 상대하여야될 것 인가。

(三)

高松塚이라고 알려진 이벽화고분은 현재 三国移 住民의 본거지로 알려진 奈良県 高市郡 明日香村 에있다。이 古墳의주인공 에있어서는 文徵이나 조사된바 武寧王陵의 경우와 같은 誌石이없는것도 낭연하 나。혹은 百済王子라는설도 있다고 한다。그러 나 그같은 문제는 且置하더라도 앞으로 더욱 밝 혀질 墓制의 문제와 四神図의 男女人物図와 星座 図를 주제로 삼은 아직도 연명한 벽화는 盜掘 서 殘存한 副葬品으로서 海獸葡萄鏡이라고 불리우 는 白銅鏡 같은 것이 綜合考察될 때 수수께기를 푸는 열쇠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日本 法隆寺建 物의 建立年代를 놓고 약 半世紀에 걸친 유명한 「法隆寺再建非再建論爭」도 그해결을 문헌이 아니라 이와 同型의 銅鏡도 포함한 지하출土品의 발견 이 하나의 契機가 되었던 사실을 연상케하여준다。

이 보도에 필자에게 것이 있었다。그것은 이 벽화와 먼저 삼신시켜야 할것으로서 日本 法隆寺에 伝世하는 天寿国繡帳의 殘片 「法隆寺再建論爭」의 특수한 전축자료이 발혀 이었다。이繡帳 또한 彩色이 잘 남아 있는데 이 벽화것과 보이는 人物、특히 그服飾이 이번 벽화것과 흡사한 사실이다。그런데 다행한 일은 이繡 帳의 畵師들 이름이 전하고 있어서 사실이다。

그다음으로는 移住民을 奈良 薬師寺 本尊基座에 각된 四神을 들어야할 것인바 이仏像台座의 四神 彫刻이 또한 이번에 발견된 그것과 곧 비교되는 바 이와같이 고분벽화 仏教造形에 각기 新發例를 불수있는 사실은 또한 주목할만하다。

위에서 들은바와같은 일본에서 전래하여온 繡帳 이나 仏座는 누구나 먼저 들수가 있을것이다。그런데 필자는 수일전 日本의 毎日신문에서 長谷川 誠(奈良文化財研究所) 氏가 이번 벽화고분의 作者를 후시 七세기 후반에 日本에서 활약한 黃書連 本実과의 관계를 추정하는 글을 읽었다。이 사람 의 선조는 高句麗로부터의 이주인으로서 서기60 4年(日本 推古天皇12年)에 黃書畵師의 姓을 받 았는데 그 후손인 本実은 天皇陵의 石室이나 石 棺의 장식을 담당한 기술자이었으므로 同一 지역 에있는 이 壁畵古墳에 관계하였을 가능성을 넉넉 히 짐작할만 하다고 하였다。

(四)

육군행정타자병 모집요강

당신은 본 학원에서 타자를 배워 남보다 먼저 행정병으로 병역을 마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1, 본학원 수료후의 특전

가, 본인이 원하는 입영시기에 입영할 수 있고 훈련소 후반기 교육을 면제하며 복무연한은 일반병과 동일 합니다

나, 해당 기술분야 주특기에 따라 행정병으로 보직되므로 군복무시나 사회진출에 도움이됩니다

다, 해외 유학생 선발에 우선권을 주고 공무원 채용시험시 매 과목마다 5% 가산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2, 모집인원: 000명

3, 응모자격:

가, 만 17세이상 26세까지(21세 이상은 영장 미수령자)

나, 병역기피 및 전과 사실이 없는자

다, 신체 건강한자

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자

4, 전형방법: 서류전형및면접에의함

5, 접수기일: 수시접수(오전 9시~오후 9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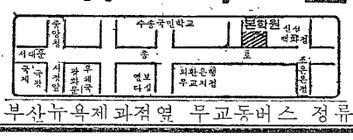
6, 기 타

가, 본원 수료자는 입영통지서에 의거 단독 또는 단체로 입영하게 됩니다

나, 행정병 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최초 받은 주특기를 기록카드에 별도 기재 관리하고 군복무가 끝날때 까지 변경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다, 주특기 변경및 다른 보직에 근무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본학원 및 육본 인사참모부 모병관 앞으로 서신 또는 전화로 알리면 즉시 조사후 해당 행정직에 근무할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것은 본학원에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히 도와드리겠읍니다

유니온타자학원



본학원만이 육군 행정타자병 양성위촉기관임

부산뉴욕제과점옆 무교동버스 정류장 TEL(73)—4079·(75)—1318

동대 지정사진관

쎄 분 사 장

대표 권 상 순

徐京保博士 門人會編

徐京保박사와佛教問答

本書는 徐京保박사가 欧美諸国과 国内 数百万信徒및 学生들과의 仏教問答集이다。理解하기 쉽게 대답하였고 따라서 仏教를 現代的으로 알려는 분은 이책을 꼭 읽으시라

寶文閣發行

서울城北区東仙洞4가43 TEL (93) 1153 대체구좌 서울6782

펜 글씨 붓 묵화

10년전통, 대학생을 위한 특별반, 한문, 한글, 四書三経, 악필 특별지도

관인 성균서예학원 ☎5529

종로5가네거리 (파출소건너)

수시접수

'72 패션모드의 집 윤상조의상실

여대생大할인초대

명동 유니스코비 11F SKY PARK GARDEN TEL 22-3800 (24109-3363)

• 디자이너 문성준

本報 구독신청이나 광고 문의는 (22) 8498로!

취업·이민 아세아 갑별학원

수시접수 남녀연중 최수시 동문수학원 망생

42) 5504

정형외과·미용외과

명도의원

의사 김현정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82-1

☎ ㉓ 6957·4338(UNESCO회관옆)

男女 大學生채용

남는 시간의 적절한 이용으로 신학기 필요경비를 自力으로 충당할 활동적인 대학생을 구합니다。

※週給制 실시

학생증 지참코 来社바람

위치: 을지로3가 파출소에서 명보극장 쪽100m 안성빌딩 302 (하층 아메리카양복점)

전화 (26) 4578

豊林文化社

<71>

高基里 군

대원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미팅을 하게된

4月

韓國 傳統劇과 現代劇의 方向

李 昌 九

□ 韓國伝統演劇의 장르는 아직까지도 우리固有의 伝統演劇芸術을 継承하지 못한채 그 定立을 만들지 못하였는것은 演劇人의 한사람으로 부끄럽기 금치 못한다。

□ 日本의 경우 古典歌舞劇으로서의 노오가꾸(能樂)가 保存되어 있고한편에 現代노오(能)가 創作되고 있는 喝歌(京劇)도 그 국체가 民衆的이긴 하지만 古典的 樣式으로서의 定立을 이루었는데 우리의 것만은 民俗的形態를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一原型으로 古典化 시키는 排除할 수 없게되었다。韓國의 民俗劇이 그런경우 이처럼 긴세월 우리固有의 아름다운 民俗的形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것을 一作用을 하게 된것이 韓國演劇의 発生이다。

□ 劇의 장르는 演劇과 人形劇과 관소리들을 수가있다。어느나라 막론하고 演劇의 起源은 宗教的儀式에서 부터 始作이 되었다는것을 學者들이 다같이 認定하는것이며 韓國의 演劇도 역시 그러하였으니 即 上古時代에는 崇天敬神을 祭祀하였고 또 神을 즐겁게 하려는 目的으로 歌舞를 하게 된것이 韓國演劇의 発生 이다。

□ 韓國伝統演劇의 発生은 宗教的儀式에서 起源되어 오늘날 이러한 古典的 樣式으로 定立을 이루었는데 우리의 民俗的 形態를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一原型으로 古典化 시키는 排除할 수 없게되었다。

□ 韓國伝統演劇의 精神이 形式의 구속을 받아 侵害당해서는 안될것이며 民俗劇의 形態와 內容은 스스로 결정되어져야 마땅할 것이다。「古典化」과정에 定立은 博物館的 存在로 귀착되고 말것이다。

□ 現代劇과 主題가 대체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基本的인 理解는 단순히 學問만 아니라 演劇의 입장에서 現場에서이 현재의 시점에 있는 것이다。

□ 伝統演劇의 內容